

# 충성대신보

제 206호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봄

충성대에서  
비전과  
희망을  
봄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이용환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부주간 권지민  
편집담당 길진규 / 편집국장생도 이주형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http://www.kaay.mil.kr)

206호 사진제공 및 편집: 병장 윤춘기, 상병 임은혁, 오세준, 채호준

# 생도모집 홍보를 위한 학부모, 협력대학, 동문과 총력

### 학부모 모니터링단 발대식, 협력대학 모집홍보위원 위촉, 총동문회와의 홍보협의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기간 단축, 각급 대학의 치열한 모집 활동으로 우수인력 획득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상황에서 학교가 전방위적인 생도모집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학교의 특성과 비전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SNS 홍보(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다각화하고, 전국 대학 및 2~3년제 대학, 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모집 홍보를 대폭 강화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확장하고자 지난 3월 29일, 전국 각지의 학부모와 협력대학 교수, 동문들을 학교로 초청하여 학부모 모니터링단 발대식, 45개 협력대학 모집홍보위원 위촉식, 총동문회와의 협의체를 가동하였다.

특히, 이날 생도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은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생도와의 동석 식사, 모니터링단 발대식, 학교 시설 및 충성의식 관람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생도모집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학교 홍보를 위한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보 집중기간인 4~5월에 홍보 포스터 게시, 학교 SNS 홍보 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성과 평가 및 분석에도 적체 활용 등은 오프라인 모집 활동 전개는 물론, 향후 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소령 한상미

## 전국 300여 개 대학 방문홍보 실시

생도, 교수, 훈육관 등 학교 전 교직원 홍보에 총력  
40여 개 군부대 방문홍보도 병행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3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대학 방문홍보는 최근 감소세인 사관생도 지원을 향상을 위해 생도, 교수, 훈육관, 교관을 포함한 학교 전 교직원이 대학교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편입학 사관학교인 3사교 특성에 맞춰 대학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교 소개와 생도 생활의 특전, 장교의 비전, 입학전형 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대학 방문홍보와 더불어 학교는 지난 4월 2일부터 전국 40여 개 군부대 방문홍보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군부대 홍보는 5월 10일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소령 한상미

# 학교발전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

박용후 PYH 대표이사,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등 사회 각계 전문가  
우수한 사관생도 획득하여 학교 경쟁력 강화 촉진



학교발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자문위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학교 정책 수립·추진에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를 학교발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학교발전 자문위원은 정책, 안보, 4차 산업혁명, 교육, 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교 모집 홍보, 임관과 동시 장기복무 추진 등 학교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게 된다.

자문위원은 박용후 PYH 대표이사,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에도 최재봉 성균관대 부총장, 이철재 중앙일보 편집국 군사안보연구소장, 박순동 한성대 국방과

장기복무로 인한 미래 불안정성을 해소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여생도 정원 확대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5년 여생도 20명이 최초 입학을 시작한 이후 2019년에 입학정원을 55명으로, 올해는 65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8년까지 여생도 정원을 12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편입학사관학교라는 학교의 특성을 활용하여 미래 육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재를 획득하기 위해 특별전형제도 도입과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교과과정 개정도 적극 추진 중이다.

소령 한상미

# 공연보고! 힐링하고! 벚꽃 버스킹 군악 공연

교내 곳곳에서 공연, 생도와 장병, 군 가족에게 큰 호응



와 학교 장병, 군 가족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벚꽃 버스킹 공연을 계획했다. 공연은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 대금 독주곡인 청성곡, 봄봄봄, 흰수염고래, 군가 메들리 등으로 이루어졌다. 군인 가족들을 위한 공연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상어 등 동요 메들리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군악대장(소령 장문성)은 “생도와 군 장병에게는 힐링과 군인정신을 함양하는 시간을, 군 가족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선물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군악대는 문화예술을 접목한 교육과 공연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무관 길진규

지난 4월 2일부터 5일까지 교내 곳곳에서 벚꽃 버스킹 군악 공연을 실시하여 생도와 장병, 군 가족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군악대는 벚꽃이 만개하는 4월을 맞아 사관생도



군악대가 문화예술을 접목한 정신전력교육의 일환으로 벚꽃 버스킹 군악 공연을 하고 있다.

# 심리학과 교수 송경재 중령, 한국군·경·소방상담학회 제9대 회장 취임



지난 1월 1일, 한국군·경·소방상담학회 운영위원회 선거를 통해 학교 심리학과 교수 송경재 중령이 제 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송 중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군, 경찰, 소방 상담의 발전을 위해 상담의 전문성, 정체성 확립, 상담문화의 확산 및 정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 중령은 지난 25년간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의 심리학, 상담학 교육을 담당하며 생도들의 상담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담당해왔으며, 또한 육군본부 전투준비안전단과 교육사 리더십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군의 자살 예방과 심리치유 분야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한국군·경·소방상담학회 회장 취임은 송 중령의 학문적 역량을 민간 상담학계는 물론, 경찰과 소방 분야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06년 군상담학회로 시작한 한국군·경·소방상담학회는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학술 조직으로서 공공 안전 직군에 맞춘 상담서비스 제공과 해당 상담 분야의 전문가 자질 향상을 위한 연구, 출판,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주무관 길진규

# 사관생도모집



## 3학년 편입학 사관학교

###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 육성 - 육군3사관학교



원서접수 : 2024. **4.29**(월) ~ **5.31**(금)

접수 : 인터넷([www.jinhakapply.com](http://www.jinhakapply.com))  
문의 : [www.kaay.mil.kr](http://www.kaay.mil.kr) 054) 330-3720~23/3701~02

2025학년도 **정시생도 62기**  
• 학력 : 4년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연령 : 2000. 3. 2.(목)~2006. 3. 1.(수)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연장 가능

2026학년도 **예비생도 63기**  
• 학력 : 2·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3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 연령 : 2001. 3. 2.(금)~2007. 3. 1.(목)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연장 가능

# 생도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시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나한테 고마워해!

시험 일주일 전 한창 시험 내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야기다.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아침에는 항상 비몽사몽한 상태인데 잠을 깨게 하는 공지 하나가 올라온다

‘금일 점심 시간에 노트북 수거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는 마음에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새로운 노트북으로 바꿔주니 필요한 문서는 미리 백업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틈틈이 시험자료와 발표자료를 백업하였고 점심 시간에 노트북을 제출하였다

저녁에 노트북을 새로 받았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아 백업해둔 자료를 저장할 수 없었고 결국 공책에 새로 정리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발표 전에 발표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자 그제야 원래 노트북을 돌려주고는

“원래 안되는 건데 준거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정말이지 고마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콧방귀를 뀌었다.

## 매일 새로운 다짐

월요일 1교시가 시작되기 전, 청운관 중앙 정수기 앞에서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말한다

A : 오늘은 진짜 안 잘 거야. 수업 들어야 해!

B : 내 말이! 지난주 다 줄아서 이번 주는 줄면 큰일 나.

A : 우리 서로 깨워주자.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은 점심시간 밥을 먹으러 갈 때가 돼서야 정신을 차렸다.

다음 날 똑같은 장소에서 말한다.

A : 오늘은 진짜 안 잘 거야. 수업 들어야 해!

B : 내 말이! 어제 다 줄아서 오늘은 줄면 큰일 나.

A : 우리 오늘은 정말 서로 깨워주자.

이렇게 일주일을 보낸 우리가 이번 주에 얻은 것은 물이 줄어 들지 않는 텀블러, 그리고 깨끗한 책과 개운한 몸이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다짐을 할 것이다.

## 꼬르륵

평일 오전 수업을 들을 때면 수업 듣는 이들의 배에서 소리가 난다. 특히 4교시 강의 시간에는 대부분이 중식 메뉴를 생각한다. 4교시 이후 중식을 위해 강의실에서 최소제대를 갖추어 식사출발을 한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다

항상 제2충용관 앞에서는 오고 있는 인원들을 한 번 더 모아서 제대를 갖추고 출발하는데, 인원들의 수가 적다면 배에서 소리가 울리는 순간까지도 대기해야 한다. 이때의 제대를 갖추는 건 어떤 목적을 위함일까?

## 무작위 주사위

그날의 내 선택을 후회한다! 전수대학에서 예체능을 전공했기 때문 · 이과를 교차하여 지원했다 1지망으로 원하던 전공에 떨어지고, 2지망으로 작성했던 이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찍 수학을 포기했던 이들도 할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등별을 달아보자는 큰 꿈을 가지고 온 현재.. 이상과 현실은 매우 달랐다. 처음 보는 기호들과 빠른 진도는 날 혼란스럽게 했으며, 멍하니 수업을 듣는 날이 늘어났다.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한다.

A : “과락하면 어떻게 될까? 안하고 싶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B : “전공이 너무 안 맞는 데 퇴교해야 하나..?”

학기 초에 전과할 수 있던 시기를 놓치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도 나는 전과를 희망한다.

## 입구 앞에서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위해 이동 중인 3학년 A생도 화창한 날씨 속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모처럼의 여유를 맞는다. 이때 뒤에서 들려오는 불같은 호통 소리

“앞에 생도!” A생도는 뒤를 돌아보고는 급히 경례를 한다.

“충성!” 아차, 4학년 선배 생도의 부름이었다.

“생도는 왜 여기를 걷고 있지?”

생도는 답한다. “교수님과 면담을 위해 교수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선배 생도는 더 화가 난 것 같다.

“아니, 생도들은 교수부 입구로 들어가는 게 안 되는데 왜 여기로 들어가고 있냐는 말이야. 중대 선배들한테 못 들었나?”

A생도는 재빨리 대답한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도서관으로 돌아서 이동하겠습니다!”

대화를 마치자 바로 앞질러 올라가는 선배 생도. 그의 뒷모습에서 왜인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진다. 그 모습을 본 A생도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선배님은 방금 어디로 들어가신 건가요?

## 기습검사

최근 충용관 내부에서의 카메라 잠금 여부 사유로 대대 전체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불시에 카메라 잠금 여부 검사가 있었고 다수의 생도가 카메라 잠금을 실시하지 않아 벌점을 부여받았다. 카메라는 잠그지 않았지만, 보안에 위반될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예고도 없는 갑작스러운 검열이 못마땅하다는 것이 일부 생도들의 입장이다.

생도들이 느끼는 이러한 감정은 많은 인원이 공감하고 있지만, 불시의 검열을 통해 평시 보안 체계의 확립을 이루어낸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분노 대신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인으로서의 보안 의식을 고취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 ‘재미로 보는 문화체육활동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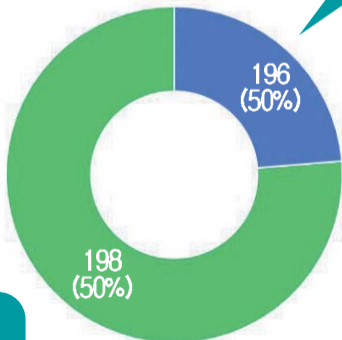
60기 배 광진 61기 이재은 기자생도

최근 문화체육 활동에 관한 건의사항이 들어왔다. 소위 문체라고 불리는 문화체육활동은 사관생도의 목표지향적인 활동 생활화를 통해 특기 및 취미를 개발하고, 장차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을 기르기 위해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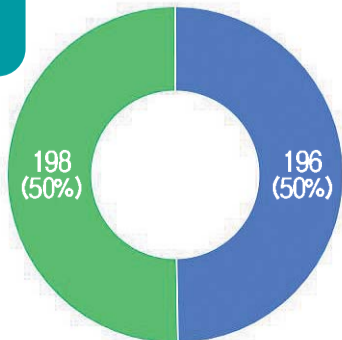
이러한 활동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체육 활동 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문체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찬성 370(76%)  
● 반대 115(24%)

찬성한다면 몇 시간 추가하는 것이 적당한가요?



● 1시간 198(50%)  
● 2시간 196(50%)

## 새롭게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서가 있나요?

희망 부서: 서바이벌(마일즈 장비 전투연습), 전쟁영화감상, 국제시세 조사, 농사

서바이벌 부서의 경우 60기의 의견이 많았다. 군사훈련 기간에 하는 마일즈 장비 사용시간이 적다 보니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기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쟁영화 감상은 역사를 배우는 수업들이 많이 있지만, 글과 설명으로만 배워 몰입도와 이해도가 떨어지기에 생겼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국제시세 조사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역사와 전쟁사례들을 많이 배우는 반면, 경제 분야는 배우지 않기에 배워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농사 부서는 도심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농사의 뿌듯함과 우리의 손으로 기른 재료들로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 선호하지 않은 부서는 무엇입니까?

비선호 부서: 국궁, 서예, 토익, 합창부

국궁부의 경우 한 번에 활을 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구경하는 시간이 더 많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며, 합창부는 희망하는 부서에 들어가지 못하여 들어온 인원들이 많다고 한다. 서예부, 토익부의 경우는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들보다 휴식하러 오는 생도들이 더 많아서 학습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 영천댐 벚꽃 100리길 마라톤대회

60기 이재원, 이승환기자생도



봄을 알리듯 아름다운 꽃들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요즘이다. 2020년에 처음 개최되었던 영천댐 마라톤이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3년을 기점으로 다시 개최되었고, 올해 2024년은 영천댐 벚꽃 100리길 마라톤대회가 지난 3월 30일 영천댐 일원에서 생도들과 장병 500여 명을 포함하여 참가자 및 진행요원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영천시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5km 건강달리기 · 10km · 하프 3가지 종목으로, 영천댐공원을 출발해 벚꽃 100리길을 따라 달리는 코스로 진행됐다. 벚꽃이 예년과 다르게 같은 시기에 많이 개화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은 있었으나, 만개한 벚꽃을 대신해 웃음이 만개한 생도들을 볼 수 있었다. 생도들은 대회 시작 전부터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많은 추억을 남겼으며, 대회가 시작된 후에는 서로에게 “파이팅!”,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응원을 통해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완주까지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완주를 목표로 한 생도들은 모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각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생도는 수상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 Q 벚꽃마라톤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A 학교 밖에서 동기, 후배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라 생각했고, 벚꽃이 만개한 영천댐의 아름다운 길을 달려보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좀 아쉬웠습니다. 나름 생도로서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체력이 좋은 참가자들을 보고 스스로 더 많이 발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0기 정진호 생도

### Q 마라톤을 위해 체력 단련 시간을 제외하고 따로 연습했나요?

A 체력 단련 간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따로 연습 없이 그냥 흘러보내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달리는 꾸준함이 좋은 체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60기 정진호 생도

### Q 힘든 구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요?

A 체력적으로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뒤에서 한 참가자분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3사 생도 파이팅!, 마라톤은 심폐 지구력만으로 뛰는 것이 아닌 삶의 무게로 뛰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힘이 생겨 의지를 불태우며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60기 김지수 생도

### Q 처음 참가한 마라톤 행사 어땠나요?

A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행사에 참여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 생각한 만큼 기대치에 도달했고, 완주 후에는 같이 사진을 찍으며 하나를 해냈구나! 라는 뿌듯함이 몰려왔습니다. 61기 양민규 생도

A 처음으로 밖에 나간다는 생각에 많이 설레었고,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닌 선배 · 동기들과 함께 나가서 사진을 찍고 추억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뛰는 동안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해보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나가고 싶습니다. 61기 임석원 생도

# 3월의 생도 생활은 어때?

## 60기 선배 생도들과의 생활은 어때?

**A :** 생도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배들을 통해 얻는 영감과 친밀감은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앞으로 경험할 모든 것들을 먼저 겪은 선배들을 보며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다는 존경심이 저를 이끕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성장하고, 선·후배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큰 보람입니다.

**B :** 현재 생도로서의 역할에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고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체력 부분에서 더 많은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선배 생도님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선배 생도님들 덕분에 생도 생활을 잘 적응하게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선배님들과 함께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매일 아침 실시하는 학과출장은 어때?

**A :** 사관생도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군기를 보여주며 팀워크를 발휘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학과출장 시 통일된 모습으로 출장하는 것은 명예롭고 멋진 일입니다. 이는 팀원들 간의 단합과 협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단결된 모습으로 자부심을 높여줍니다.

**B :** 반면, 아침마다 실시하는 학과출장에 대한 의문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학 아침에 강제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비싼 생도 생활에 더욱 피로감을 주고, 시간을 빼앗긴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일 5일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열 학과출장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60기, 61기의 첫 생도 생활 지도는 서로 어때?

**60기 :** 61기 생도들의 긴장한 모습이 뚜렷이 보였고, 이에 따라 생도 생활 지도를 더 진지하게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자 정위치·핸드폰 정위치·출입요령 등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60기들이 옆에서 잘 가르쳐 주어야 하며, 61기들은 그날 받은 지도에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도를 받았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61기 :** 생도 생활 지도를 받으면서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이번 지도를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군기를 확립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공간을 청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도하시는 모든 선배 생도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 일반학 수업은 어때?

**A :** 일반 대학생들처럼 수업을 듣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복장을 갖춰 입고 수업을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B :**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배우다 보니 수업 진도가 빨라복습이나 과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일과가 너무 빠르고 개인 시간이 부족해서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 체력 단련 시간은 어때?

**A :** 항상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각 중대만의 노래를 부르며 활동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군가를 부르면서 힘든 순간도 있지만,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나면 개운하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마무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력 단련을 통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특급을 달성하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B :** 선배들과 후배들이 뒤섞여서 단체로 호흡을 맞추고 함께 땀을 흘리며 성취하는 과정이 큰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스팔트에서 뛰면서 발목, 무릎, 어깨 등의 부위에 피로가 쌓입니다. 특히 전투화를 신고 뛸 때는 피로가 더욱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60기 강지애, 61기 나은비 기자생도

# 나를 뽐내는 소비

지난 3월 25일, 61기 생도들은 생애 처음으로 품위유지비를 받았다. 용사들의 월급이 인상되어 생도들의 품위 유지비도 같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품위유지비의 인상으로 인해 생도들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충성대 신문사에서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61기 생도들의 소비 카테고리를 지면에 담아보았다.

분석해보니, 자기 과시와 실속이라는 갈래로 소비의 분류가 나뉘었다. MZ세대들에게 'YOLO 소비와 파이어족'이란 개념이 비슷한 시기에 유행했다는 것은 소비에 있어 명확히 개성이 나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도들의 소비패턴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생도 생활의 전반적인 생활양식을 바꾸기도 한다. 같은 구매력을 가진 생도들에게 한정된 재화에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서로 다른 소비습관은 생도들의 구매 목적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만족감을 자아낼 것이다.

## 61기 생도들은 품위유지비로 이런 걸 샀다!

충성대 신문사에서는 61기 생도 350명을 대상으로 품위유지비 지출 소비 카테고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1기 생도들은 ▶쇼핑(전자기기 및 러닝화), ▶식비(생도화관, PX, 파리바게트 등), ▶자기계발 순으로 지출을 하였으며, 기타 항목에는 경조사비와 취미생활, 휴대폰, 용돈, 부모님 용돈 등에 품위유지비를 지출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생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전자기기 및 러닝화의 경우 생도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생도들은 스마트워치로 연락이나 상급자의 지시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유니폼을 입는 생도들에게 스마트워치 스트랩은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영역이기도 하다. 아울러 러닝화의 경우, 폭신한 착용감과 뒹굴음 간 지면에 반발력을 만들어 기록 단축에 이점을 주기에 생도들에게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다.

## 61기 생도들의 잇템!

생도들이 품위유지비로 구매한 물건 중 가장 만족하는 물건으로 ▶러닝화(160명), ▶러닝화를 제외한 운동용품(54명), ▶스마트워치(53명), ▶기타(83명) 순으로 선택했다. 이중 기타 항목은 아직 만족하는 소비가 없다고 작성한 29명과 생필품 및 화장품 그리고 문구류라고 작성한 5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관해 61기 A생도는 기자생도와와의 인터뷰에서 동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는 것이 러닝화와 스마트워치가 있다고 들었으며, 본인도 역시 러닝화를 샀고 자주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외에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향수를 선택했다. 향수는 다소 답답할 수도 있는 생활에 좋은 향기로 활력을 불어넣어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는 의미가 있어 매우 좋아한다고 했다. 또한, 본인을 꾸밀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는 생도대에서는 자신을 떠울리게 하고 본인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 통장과 텀장 사이, 한정된 재화로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는 방법은?

생도들은 설문조사에서 좋은 소비의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했다. '소비와 저축에 적절한 비율에서의 소비', '가성비', '필요성을 생각한 소비'. 생도들은 생활 전반에 대한 필요성과 지출 비율을 고려하며 만족보다는 실용성에 집중한 소비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비교적 실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도가 많았다. 그리고 소비에서 만족을 말할 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실용성 있는 소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으며, 그렇지 않다면 무분별하고 필요하지 않은 소비의 비중이 늘어나서 좋은 소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힘든 생도 생활 중에 자기를 위한 작은 선물 등으로 만족감을 높이며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서 말한 실용성과 만족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 61기 생도들의 소비와 적금 비율

350명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품위유지비 대비 지출 비율을 조사했을 때 30% 지출(205명), 50%(135명), 70%(27명) 순서로 많이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20%(4명), 90%(1명), 20%(2명), 10%(1명), 미응답자(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적금 비율로는 각각 50%(147명), 70%(90명), 30%(90명), 60%(3명), 40%(2명), 10%(1명), 미정(3명)으로 집계되었다. 설문 결과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생도가 소비보다 저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관학교 특성상 단체 생활을 하기에 소비에 있어 다양성이 많지 않다. 따라서 단순 충동에 의한 소비가 아닌 결심에서 비롯된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도들은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0기 이주형, 강준성, 61기 이에찬 기자생도







이들은 ' #'을 보았을 때 우물정자로 인식하는 반면, MZ세대라고 일컫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해시태그로 인식한다. 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구성원 내 세대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육군3사관학교도 어느 사관학교처럼 충성기초훈련이라는 입교 전 적응훈련 기간이 존재한다. 이 기간에 충성기초훈련을 받는 가입 생도들을 '충성기초군사훈련생도', 줄여서 기훈생도라 일컫는다. 충성기초훈련 기간은 과거 선배님들이 받으셨을 때부터 현재까지 항상 존재했다. 하지만 여러 변화 속에 세대 간의 간극이 존재하듯이 충성기초훈련 역시 변화의 양상을 거쳐왔다. 우리는 충성기초훈련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봤다.

### 기훈지도생도, 세월을 막론하고 느껴지는 첫인상의 무게감

**61기 A생도** : 16시였습니다. 학교 설명회를 하면서,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부모님이 떠나면 분명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역시나, '너네 생활관 훈련 2등 막사 3층이니까, 3층으로 빨리 올라가' 라고 엄청 목소리를 깔고 말하던 기훈지도생도가 기억납니다. 이후에 숨이 멎을 듯한 어색함이 반겼습니다. 생활관에 있던 관물대 구경을 했습니다. 이 순간 기훈지도생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 왜 웃지?', 처음 기훈지도생도를 보고 든 생각이었습니다. 첫 대면에 웃는 사람, 신선한 공포였습니다. 알 수 없는 표정이라 뭐라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잘 부탁한다는 기훈지도생도의 말 한마디에 쉽사리 대답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스크와 차양모, 백색 수갑 차림의 기훈지도생도를 보고, '저 장갑으로 만지려 확인하냐?' 불인이 올라왔습니다.

편하고 훈련, 운동 등 힘들었던 상황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만약 동기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동기들과 함께한 전우에 덕분에 힘든 상황을 웃으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기훈생도 ###, 다시 하겠습니다!”, 평일 21시에 올라오는 충성

**61기 A생도** : '눈동자 굴리지마, 정면 15도' 그리고 무한의 관등성명, 제가 저녁점호 간 지켜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곳을 봤다고 하면, 저는 응시했던 물건을 점호가 끝날 때까지 봐야했습니다. 매일 밤 21시에는 목에 띠대를 세운 관등성명과 "다시 하겠습니다!"라는 절절한 말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61기 생도들은 각자 지켜야 할 개인적인 규칙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두곤 매일 아슬아슬하게 저녁점호를 보냈습니다.

**51기 B대위** : 저녁점호를 받을 때 생각나는 일화는 옆 생활관에서 엄청난 기합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 떠오릅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해당 내용을 들어보니 옆 생활관 동기 중 한 명의 필통에 초콜릿이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초콜릿은 동기의 누나가 엄청나게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먹고 힘내라는 의미에서 1개를 쥐서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마침 필통을 바닥에 떨어트려 쏟아지면서 기초군사훈련 지도생도에게 발견되어 크게 지도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당시에는 옆 방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저희 방까지 큰 공포감이 찾아왔습니다.

## 충성기초훈련의 어제와 오늘, 어떤 것이 달랐을까?

**51기 B대위** : 그 시절 기초군사훈련 피견생도 선배님들의 첫인상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저 또한 매우 엄격하면서도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은 엄격하면서도 지도와 지원에 대해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갖고 계신 전문성과 리더십을 통해 기초군사훈련 생도들이 군인의 첫발, 사관생도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올바르게 내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마스크와 차양모 착용 형태의 변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개선된 보급을 통해 기술의 발전과 군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무기개발을 통해 한 단계 발전된 무기들이 보급되듯이 피복이 개선되어 실제 착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꾸준히 군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 기훈시절을 거치고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61기 A생도** : 군인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생도대에 넘어와서는 군기가 있는 후배로 선배 생도님들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일상의 해방감을 느끼다 보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과정으로 생도대에 넘어오곤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그만큼의 인내로 고통의 한계치가 높아져, 성격이 많이 유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양성과정 속 이해가 안 됐던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61기 A생도** : 'KT표 예매했으니까, 오전 중으로 마음 정리해' 라는 기훈지도생도의 한마디에 '진짜? 나 보고 가리는 건가? 여태 버텨왔는데' 라고 제 자존심이 굼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시간에도 여러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훈지도생도들의 자꾸만 반복되는 복도로 정렬하라는 무한 명령, 그리고 창문을 열고 구령 조정을 시키는 등, 우리 기훈생도들은 이것에 '왜?' 라는 질문과 정체 모를 화가 올라왔습니다.

**51기 B대위** : 체력측정 시 특급 기준 달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팔굽혀 펴기를 구호 없이 하는 것도 무척 힘든데 구호에 맞게 팔굽혀 펴기를 하게 되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선생님이 힘든 상황에도 하나를 더 시키는 이유처럼, 체력 단련 중 힘든 상황에도 하나를 더 하는 끈기로 향상된 체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본 제식과 더불어 군인 기본 자세가 체득화가 되어, 생도대로 넘어오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초군사훈련이 끝나고 나니, 동기들과 남다른 전우애가 생겼습니다. 이런 요소들 덕에 생도대에 넘어와서도 단체 생활을 할 때도 나름의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하계군사훈련 시절 중대장 임무 수행을 할 때도 중대원들에 힘든 고충을 잘 파악하게 되었고, 조율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51기 B대위** : 이해하지 못했던 관습은 없었으며 기초군사훈련 때 평소 사회에서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해서 매우 낯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 직각식사는 태어나서 처음 하다 보니 옷에 음식들을 자주 떨어뜨리고, 국물을 쏟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직각식사를 통해 농부들께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생산해주신 쌀과 기타 음식에 필요한 각종 재료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군대라는 곳에 와서 단체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 의견을 조율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많은 시간을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

60기 이주형, 강준성, 61기 이에찬 기자생도



칼럼 I



중령 강용관  
(인문학처심리학 교수)

**얼마전에** '한국전쟁 미군 병사들의 기록(안토니 비벨 외)'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13명의 미군들이 겪었던 사건과 느낌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시의 생생한 사진들을 통하여 전쟁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미군들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전쟁의 불확실성과 참혹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노란머리 병사의 고백

여기는 어디인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지도에서조차 보지 못했던  
나라

흑한과 검은 포화속,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내 무덤 앞에서 울어줄 사람은  
있을까?  
내 몸이 부서지고 흩어지면 무덤  
이나 있을까?

빨간 적들이 시켜면 연기를 내뿜  
으며 물려온다.  
전우들의 몸이 붉어지고 아우성이  
들린다.  
정신을 차리자.  
눈을 키쳐뜨고 방아쇠를 당기자.  
전우들이 사라지기 전에,  
이 땅에 평화가 사라지기 전에

을해야만 했던 당시 미군 참전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두려웠을까? '노란 머리 병사의 고백'이라는 위의 시는 필자가 잠시 참전하는 미군의 입장으로 감정이입이 되어 적어 본 짝막한 시이다. 나는 가끔 이 시를 읽으며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곤 한다. 그리고 시를 영문으로도 번역하여 미군을 만날 때면 보여 주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전쟁에서 삶과 죽음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전투 중에 너무 변이 마려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포탄이 떨어져 동료들은 죽었지만 본인은 살아남았던 일,

또한, 전쟁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냥 총 한 방 맞고 죽는 것이 가장 덜 고통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흑한 속에서 몸이 얼어붙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야 했던 상황, 총에 맞았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싸워야만 했던 상황, 포로로 잡혀 모진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일들, 배고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일들, 탈출하는 과정에 겪어야만 했던 갖은 고통과 우연들, 사랑하는 동료가 죽어보는 모습을 지켜 봐야 했던 일 등 말로만 들어도 글로만 읽어도 끔찍하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여러 사람은 잊고만 싶었던 아픈 기억을 다시 생각해 내야 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전쟁 미군 병사들의 기록’을 읽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총 참전자는 1,789,000명이며, 이 중 전사자는 36,940명, 부상자는 92,134명, 실종자는 3,737명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대부분의 미군은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지도상에서 그 위치를 알지 못했을 만큼, 당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힘이 없는 나라였다.

자신의 나라도 아닌데 고국과 사랑하는 가족 품을 떠나 목숨을 건 모험

전투 중에 너무 졸려서 참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위로 수많은 적군이 지나갔던 일, 아무런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총을 든 적군을 만나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이상하게 적군들이 총을 내려놓고 행복한 일 등 삶과 죽음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인지 많은 미군들은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전시의 용기는 악조건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글 속에서 신체의 일부가 파편에 의해 절단되거나, 관통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을 나르고 사격을 하고 동료들을 돕는 등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싸웠던 모습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보기를 염원해 본다. 군인으로서 전쟁의 참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 평소에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칼럼 II



중령 최재호  
(학교본부입학관리실장)

**중국을** 대표하는 명분 중 하나가 삼국시대 蜀(촉)의 승상이었던 제갈량(諸葛亮, 181~234년)이 쓴 출사표(出師表)이다. 제갈량의 출사표는 크게 전(前) 출사표와 후(後) 출사표가 있다. 출사표는 그 의미처럼, 신하가 군사를 일으키기 전 왕에게 올리는 상주문(上奏文)을 말한다.

제갈량은 227년 선주(先主)인 유비(劉備)의 유조(遺詔)에 따라 위(魏)나라에 대한 북벌(北伐)을 진행할 때 쓴 상주문이 바로 출사표이다. 당시 3국은 서로가 비슷한 국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촉나라가 3국 중 가장 뒤쳐지는 국력을 가지고 있었으

며, 위나라는 3국 중 가장 강력한 국력을 지니고 있었다. 3국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 지성인 제갈량이 그걸 모를 리 없지만, 왕에 대한 신하의 충성심보다, 인간 유비와 인간 제갈량 사이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5년 동안 8번

지금 우리 군(軍) 또는 학교가 처한 상황이 이렇다. 대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도모집 자체가 녹록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에게 거품을 내 촘촘하게 몸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법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많은 인원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모집 자원 중에서도 옥석(玉石)을 명확하게 고를 수 있는 혜안(慧眼)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며, 구성원의 노력과 구성원 상호 간의 격려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건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사실 땅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길이 되는 것이다.

<노신(魯迅) 『고향(故郷)』 중 마지막 구절 '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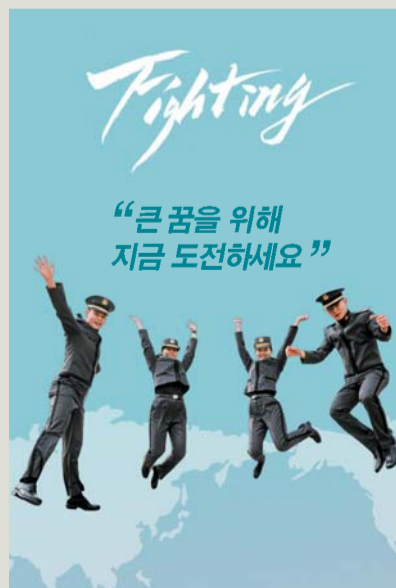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각자의 가슴 속에 출사표(出師表)를 지니고, 같은 길을 걸기를 기원한다.

始 出師表

출사표를 먼저 쓰기 시작하면서

의 목숨을 건 북벌을 감행한다. 이때 자신의 심정을 담은 글이 바로 출사표이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읽는 사람의 심금(心琴)을 건드린다.

『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에 '천학지어(泉涸之魚 상유이말(相濡以沫)이라는 고사가 있다. '샘물이 마르자 물고기들이 모여 거품을 내 서로를 촘촘하게 적서 의지한다'라는 뜻이다. 샘물이 마르지 않았을 때는 작은 먹이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지만,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면서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칼럼 III



소령 문준호  
(인문학처 군사사학과장)

2002년은 한국 사회에 '기적'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되었던 시점이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관한 월드컵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4강에 진출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선전이었고 전 국민은 열광하였다. 자연스럽게 당시 패거리를 이룩한 연원에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관련 논의도 활발하였다. 여러 요인 가운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투혼'은 4강 신화의 핵심으로 언급되었다.

약체로 평가받던 한국이 2002 월드컵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처럼, 한국 고대사에 있어 신라의 삼국통일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특히 화랑을 비롯한 신라 국민들이 전장에서 보여준 기백은 순국 정신으로 확산되어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고대 사회는 무력충돌이 일상적이었기에 국가는 일종의 병영과 같

은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군사의 영역은 타 사회 분야를 압도하며, 정치 공동체의 의식체계는 필연적으로 전쟁과 결부되었다. 특히 7세기 동아시아는 전쟁으로 점철되었기에 광의적 차원에서 군사 중심의 '총력전' 시대로 바라볼 수 있기에 전술한 양상은 더욱 선명하게 되었다.

신라의 순국주의 형성에 있어 불교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일찍이 진흥왕은 팔관회를 거행하며, 불교 계율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전몰자 추념 의례를 거행하였다. 이는 점령 지역의

以忠(사군이충), 事親以孝(사친이효), 交友以信(교우이신), 臨戰無退(임전무퇴), 殺生有擇(살생유택)으로 구성된 이른바 世俗五戒(세속오계)다.

귀산과 추항은 원광법사의 가르침을 602년 아막성 전투에서 발현하였다. 백제군에 패퇴하면서 이들은 "스승께서 선비는 군대에 맞서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찌 패배하여 달아나겠는가!"라고 외치며, 항전하였다. 전장의 모든 군사가이를 보고 분발하며 백제군의 공세를 막아냈지만, 신라군의 시체는 들판을 가득 채웠다. 진

국가를 위하여 전사한 영웅들을 흠모하며 수련 간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투 현장에 나아가 살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결사 정신은 국가를 더욱 강성하게 하였다. 교육을 통한 순국주의 확산 시스템이 신라 사회에 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한 바와 같이 신라는 전쟁에 임하여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신념을 발현시켰고, 순국 인물들의 전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며 추앙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세속오계는 신라 국민의 핵심 사유체계로 정착하였고, 위국 충절이 내재한 영웅담의 생산과 교육은 국가가 영생적으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활용되었다. 한편 국가 차원의 선양과 보상은 구성원에게 국가를 가시화하는 효과를 동반하였고 이는 공동체 연대의 강화를 도모하는 요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라는 순국을 전술적으로 활용하며 전투에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하였다. 요컨대 신라는 정치, 군사 전략, 전술의 중층적 차원에서 순국주의를 발동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신라는 순국주의를 통해 기적을 이룰 수 있었고 종국에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여러모로 군이 어려운 시기에 과거 화랑들의 모습을 추급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본다.

## 신라 삼국통일의 원동력 : 순국주의

평정과 체제 안정을 위한 기념식으로 전통시대 '기억의 정치'의 일환이었다. 이후 진평왕도 '궁중불사' 체제를 정립하며 국정운영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불교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진평왕은 수나라에 유학 후 정착한 이른바 불법의 대가 圓光法師(원광법사)를 환국시키기도 하였다. 「삼국사기」 열전에 따르면, 원광법사는 화랑이었던 貴山(귀산)과 籌項(추항)이 종신토록 지켜야 할 가르침을 요구하자, 보살계를 거론하며 속세인들에게 5가지 계율을 하사하였다. 이것이 바로 事君

평왕은 몸소 阿那(아나)의 들판으로 나아가 시체를 맞이하고, 그 앞에서 통곡하며 예로써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또한, 전사한 귀산과 추항의 관등을 추증하였다. 이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보상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로써 국가를 위한 죽음이야말로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신라는 전사자 육신 전유를 통하여 대내를 결집하고 대외 팽창을 도모할 수 있었고, 사회 구성원들의 애국적 덕성 형성이 본격화되었다. 한편 화랑들은

### 명에 칼럼리스트 칼럼



윤용로  
(주)코람코자신전략 회장

1980년대 미국 유학 시절, 지금은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가 된 존 미어사이머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각종 무기로 상대국을 파괴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보병이 진입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인구는 국가안보의 큰 보투라고 했습니다. 과거 적성국이던 동구권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독일이 광범위한 출산 지원책을 갖고 있었던 것도 그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신무기 등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고는 있지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유례 없는 초저출생은 안보에 있어서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태어난 가정 환경을 무시

할 수 없듯이 국가도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있는가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팀 마셜은 저서 '지리의 힘'에서 폴란드와 한국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나라로 꼽았습니다. 우선, 폴란드를 봅시다. 유럽과 러시아를 분리해주는 가장 커다란 지리적 요소는 알프스 산맥입니다. 나폴레옹을 포함한 수많은 정복자들이 소련 공격에 나섰지만, 알프스의 추위와 지형에 막혀 실패했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하고, 시대적 변화에도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명지대 한명기 교수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크고 작은 전투는 많았지만, 전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전쟁의 공통점은 조선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국제정세의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탄을 개발하면서 미국은 군사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었지만 1949년 소련도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면서 전 세계는 핵 분쟁 등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로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1961년 당시 미국 국방부장관 맥나마라는 소위 '상호확증파괴(MAD)'를 언급했는데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는 서로 치명적인 무기를 갖고 있으면 설불리 공격을 못 하게 되어 전쟁이 억제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반대로 보면 전쟁을 억제하려면 막강한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핵무기 고도화에 몰두하는 북한에 상응한 대응수단을 갖지 못한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통해 경솔한 판단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과 국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정세 변화 움직임은 우리에게 엄청난 폭풍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군사력과 국력의 주춧돌인 3사관학교 생도들의 어깨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더라도 중차대한 소명을 생각해서 서이겨내시기 바라며, 우리 국민의 믿음과 존경을 담아 큰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 다시 폭풍우 앞에서

알프스산맥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한 폴란드는 평원지대여서 역사적으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인접국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다급해진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탱크 등 대규모 방산 수입에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 기인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폴란드 못지않게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죽하면 팀 마셜이 우리나라 부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풀 수 없다. 그냥 관리만 할 일이다"라고 했습

니다. 우리의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하고, 시대적 변화에도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명지대 한명기 교수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크고 작은 전투는 많았지만, 전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전쟁의 공통점은 조선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국제정세의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침범했고(임진왜란),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한 청나라가 명을 따르는 조선을 침략했던 것입니다(병자호란). 현재 세계는 미국의 위상이 점차 축소되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접근하며, 중동과 인도의 부상,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전쟁 등으로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과 같은 격변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45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원자폭

2024 트렌드 노트

# 나의 라이프와 취향이 담긴 나의 집



정현아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팀 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 못한 사람들은 집 꾸미기에 관심을 가졌다. 인테리어가 아니라 집 꾸미기로 이야기되는 지금의 집 꾸미기는 이사로 인한 대규모의 인테리어가 아니라 살면서 나의 취향과 라이프에 맞게 집에 변화를 주고, 모든 걸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맞춰가는 것이 집 꾸미기이다. 집은 설거지와 분리수거, 집안일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의 공간이자 나의 취향을 반영하는 꾸미기의 공간이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 운동, 취미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집은 취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벽지부터 수전까지 일일이 내가 선택해야 하며,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일을 하는 홈오피스, 운동을 하는 홈짐, 여유로운 홈카페 등 다양한 집의 형태가 나타난다. 당신의 집은 어떠한 모습일까?

##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는 집 꾸미기의 핵심

라이프스타일별 집 꾸미기는 어떻게 다를까?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달리 1인 가구에서는 내 방이 높게 나타난다. 1인 가구는 보통 원룸에 살고 있어 내 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고 효율

가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공간 분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인 가구는 결혼하며 넓어진 집에서 구성원의 로망을 최대한 실현하려고 한다. 사람을 접대하기도 하는 다이닝룸을 꾸며 로망을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가 신혼가구로 구매한 가장 첫 번째 가구는 식탁이었다. 식탁을 선택하기 전 아래를 선택해야 한다. 4인용 식탁 vs 6인용 식탁. **신혼부부들은 주로 4인용 식탁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다이닝룸에 대한 로망이 있던 나는 ‘6인용 식탁’을 고집한다.**” 남편의 로망인 컴퓨터방, 서재를 만들기도 하고, 아내의 로망인 드레스룸을 꾸미기도 한다.

요하다, 인테리어가 파티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인테리어 관련 욕심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홈파티와 무관하지 않다. 직장 동료나 친인척을 초대하는 집들이는 사라졌지만 내가 선별한 나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맛있는 요리를 즐기는 홈파티는 계속된다.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은 기본이고, 집에서 나의 루틴을 지키기 위해 홈짐을 설치하고 있다. 홈짐은 나의 로망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많은 기구가 있는 헬스장이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기구를 목적에 맞게 갖추고 하는 운동은 더욱 재밌다. 홈짐은 나의 로망을 얼마나 잘 실현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라 인기 있는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이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나만의 취향을 찾아가고, 스타일을 학습하고 높아진 눈높이를 기본으로 하여 본인의 취향에 맞게 라이프스타일이 분화한다. 예쁘게 꾸며진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라고 부를 만한 집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최근 2년 사이에 인테리어 연관 물건으로 ‘그림’과 ‘식물’이 ‘인테리어 소품’을 역전했다.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구입해야 하는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나의 집을 나답게 꾸밀 수 있는 그림(아트)이 나의 취향에 맞게 선택된다. 결국, 최종 종착지는 나의 취향인 것이다. 취향은 찾아가는 것이다. 취향은 안목과 지식으로 쌓여야 하고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다. 그 움직임이 그림으로 나타난다. 식물의 변화도 흥미롭다. 식물은 ‘플랜테리어

## 코로나 이후의 집, 편안한 건 집에서



## 분위기의 소품에서 나의 취향 아트



## 집으로 들어온 외부 : 홈오피스, 홈파티, 홈짐

집에서 하는 활동도 다양해졌다. ‘홈오피스’, ‘홈캠핑’, ‘홈파티’라는 말은 팬데믹 이전에는 쓰지 않던 말이다. 외부에서 하던 활동을 집으로 들여왔을 때 사용하는 홈OO는 팬데믹 이전부터 증가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는 ‘홈카페’다. 홈카페는 2017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언급되는 홈OO의 대표 표현이다. 카페처럼 꾸며진 우리 집 인테리어, 남다른 나의 커피 취향, 여유 있는 시간까지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장면에 쓰인다. 팬데믹 이후 여유의 집에 작업하는 집이 추가된다. 홈오피스에는 예쁜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인테리어가 필요하

할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하다.

## 마침내 스타일의 완성: 아트와 가드닝

누구에게나, 언제나 마음 가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2010년대 중반 인테리어 업계에서 취향의 집이라고 말할 때 그 집은 지금까지와 다른 스타일의 집을 말하는 것이었다. 체리색 몰딩, 형광등 조명, 형형색색의 소품들로 채워진 집이 아니라 화이트 배경에 마찬가지로 하얀색 원형 테이블, 펜던트 조명, 이파리가 큰 초록색 식물과 알파벳 액자가 한 칸에 놓여 있는 이른바 북유럽 스타일의 집을 취향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때 취향은 각자가

에서 ‘반려식물’, ‘가드닝’으로 진화했다. 인테리어의 대상이었던 식물은 함께 사는 반려로 위상을 높이고, 가드닝으로 취미화된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집도 변한다. ‘어떻게 예쁘게 꾸밀 것인가’의 대상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의 동반자가 된다. 동반자가 되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조명, 식물, 그림이다. 유행하는 조명, 식물, 그림(액자)에서, 나의 취향을 대변하는 조명, 식물, 그림으로 변했다. 다음은 내가 사랑하는 조명, 내가 기른 식물, 내가 만든 그림(아트)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나의 집’이 완성된다.

## 나의 방 vs 로망 실현 vs 자투리 공간

카테고리	순위	연금액 (억 원)	
자투리(1인 가구)	1	침실	3693
	2	주방	2810
	3	거실	2019
	4	베란다	898
	5	안방	714
	6	욕실	686
	7	현관	604
	8	침실	536
	9	장고	370
	10	복도	346
신혼(2인 가구)	1	거실	2083
	2	주방	1850
	3	욕실	1459
	4	안방	843
	5	베란다	551
	6	침실	378
	7	현관	339
	8	드레스룸	281
	9	서재	189
	10	장고	179
가운(3인 이상)	1	욕실	68774
	2	거실	50554
	3	주방	46181
	4	안방	19971
	5	베란다	18354
	6	현관	13035
	7	침실	9254
	8	장고	6808
	9	안방	5598
	10	장식	4769

적인 가구 배치를 하기 위해 공간 분리에 힘쓰고 있다. “저는 5평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재택근무로 바뀌면서 평소 지내던 원룸의 가구 배치나 소품 배치를 완전히 바꿔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뒤섞여서 진정한 휴식도,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지 못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달 내내 고민하고 생각하다 가장 마음에 들어서 유지하고 있는 공간 분리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분리하기도 하고, 주방과 침실을 구분하기 위해 커튼을 설치하여 분리하기도 한다. 공간 분리를 통해 원룸일지라도 구역별 역할을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1인 가구

다. 테이블과 의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업무 시간의 시작과 끝을 체감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면 업무가 끝난 뒤 이 방을 나와야 하고 분리할 수 없다면 책상 위를 치우거나 조명이라도 바꿔야 한다. 홈파티는 일상의 공간인 집이 때로는 일탈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나만의 공간에 대한 니즈가 높지만 선별된 누군가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반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의 수석어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나의 집은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초대하는 집이다. 홈파티가 일어나는 집에는 큰 테이블이 필요하다,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조명도 필



## 동문(同門)의 소리 I

##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입장에서 서 있지는 않다



소령 나 용현(3사 47기)  
1사단 15여단, KAIST 기계공학석사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이 점을 기억해두는 게 좋을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서 있지는 않다는 것을.” 필자가 좋아하는 소설인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대사이다. 해당 대사는 이번 기고문을 통해서 3사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다.

소설의 문구는 상황마다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고 (영화에서는 “사람의 좋은 면을 보아야 한다.”라고 각색) 각각 부정 혹은 긍정의 의미로도 여겨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야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각자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해석하기 쉽고 때론 남들도 자신과 동일한 입장에서 이해할 것이라 착각한다. 많이 하는 실

수로 작은 예를 들면, 보고 시 보고 대상도 자신과 동일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어를 생략하여 보고하거나 자신의 생각만 정답이라며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해석은 경계하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상황에서의 객관적인 기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 자신보다 업무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뛰어난 상대를 보면서 입관 출신과 환경 등을 핑계 삼아 주관적으로만 바라보고 나의 한계를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노력과 밟아온 길을 보고 나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한 채 말이다. 우리는 객관적인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때론 그것이 실패일지라도 인정이 전제되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갈 때는 나와 동일한 입장으로 남을 선불리 평가하거나 질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해석은 사람과의 ‘관계’와 그로 인해 발현되는 ‘영향’에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군인들은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상하, 동등, 상관없는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 간에 좋든 싫든 다양한 ‘영향’을 서로 끼치며 생활한다. 일례로 필자는 10여 년의 군 생활 동안 병-생도-장교 생활을 거치며 많이 행복하기도, 슬프기도 했으며 때로는 그냥 멍하니 지내기도 하였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국방이라는 공통된 목표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관계와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니 역시 군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군 생활을 평생의 슬인주라고 여겨질 만하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까? 사자성어 중에 동기상구(同氣相求)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는 서로 찾아 친하게 모인다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마인

드를 가지고 인정으로부터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영향을 가지는 반면, 주관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될 것이다. 군에서의 다양한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싶은가? 지금 여러분이 장착한 마인드로 결정될 것이다.

이상한 취미일지도 모르겠지만 필자는 공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씩 토익 시험을 응시하기도 하고, 책을 읽을 여유도 없으면서 도서관에 이따금 방문한다. 그 공간에는 초등학교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적어도 필자 눈에는 그분들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며 큰 동기부여를 준다. 물론 그렇다고 필자의 행동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용기를 주는 것은 확실하다. 같은 의미로 혹 후배들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위탁 교육에 꼭 도전하고 더 큰 관계와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영향을 경험해보기를 조언하고 싶다. 군에서 제공한 다양한 기회들은 특정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도 위대한 이라는 수식어가 역설적이게도 사랑을 바칠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바치고 하고 자의식에 빠져 자기 자신의 이미지와 사랑을 빠진다. 주관적으로만 주변을 바라보고 해석한 결과인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의 소설 속 인물들은 이러한 자의식에 빠진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소설가 김영하는 이 소설을 “표적을 빛간 화살들이 끝내 명중한 자리들”이라고 표현하였다. 소설이든 영화든 지나친 주관적인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기 위해서 한번 접해보기를 추천하는 바이다. 여러분은 위대한 개츠비가 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더 성장하는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

## 동문(同門)의 소리 II

## 누구든 나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 능력을 갖춰라



대위 김 송이(3사 53기)  
KAIST 핵공학석사 위탁교육생

“다음은 한미연합사령관상입니다. 상장,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김송이,…”

2018년 3월 3일, 충성대 연병장에 울려 퍼지던 소리. 인생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고, 뼈곡하게 즐기고 있는 어께 위의 다이아몬드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이다. 그때의 나는 무슨 일이든, 어디에 가든 전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잔뜩 부푼 마음을 안고 상무대 화생방 학교에 입교했고, 충성대에서 항상 잘 해왔기에 이곳 상무대에서도 당연히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젠 희망

사항이었을까, 충성대와 달리 상무대에는 나를 감싸줄 울타리가 없었다. 생도 계급장이 아닌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기에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도 해결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너무 힘들어서 구석에서 몰래 운 적도 많았다. 4개월 남짓의 교육 기간, 앞으로 나의 군 생활을 위해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런 와중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문장, “누군가가 남들과 너를 출신으로 구분 지으려 한다면, 출신 상관없이 너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능력을 키워라.”, 생도 시절 부생도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웬지 모르지만, 뭘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을 느꼈고, 이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긴 채 나의 첫 자대에 도착했다.

아전에 첫발을 디딘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몫을 ‘제대로’ 하는 것.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다. 화생방소대장으로서 나의 전우들을 항상 진심으로 대했고, 학교에서 배운 전문 지식의 실전 적용을 위해 숙련된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내 것으로 빠르게 흡수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사람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했고,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거라 여겼다. 내가 부족한 만큼 남들보다 더 큰 시간을 들였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 나는 내 몫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에이스 소대장’이 되어있었고, 이젠 나를 차별화하기 위한 추가 수단이 필요했다.

나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써보려 나의 패턴을 분석해 자기계발 시간을 마련했고 영어성적, 기

사 자격증 등 장단기 목표를 세웠다. 또한, 군단에서 주관하는 음어, 독후감, 보안경연대회 등 뭐든 마다하지 않고 도전했다. 업무를 모두 마친 후 숙소에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시간이 나에게겐 굉장한 행복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나는 업무도, 자기계발도 게을리하지 않는 ‘똑똑한 에이스 소대장’이 되어있었다. 나를 알리지 않아도 모두가 나를 알아주기 시작했다.

물론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중요한 훈련에서 크게 실수한 적도, 오랜 기간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진 적도, 위탁교육생 선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적도 있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좌절들은 나로 하여금 도전의 의지를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국, 나는 목표를 이루던, 이루지 못하던,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한 나’를 향해 가는 길을 진심으로 즐겼고,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소위 김송이’ 그때의 그 마음가짐 그대로 새롭게 도전하고 있다. 자기계발만 하라는 게 아니다.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나만의 강점을 만들 수 있는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7년 전 들었던 부생도대장님의 말씀을 계기로, 나는 오늘도 누구라도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던,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공존하게 마련이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좌절의 순간을 기회로 돌릴 수 있는 긍정과 단단함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군인으로서 지녀야 할 본분을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나를 차별화하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장교가 되길 바란다.



**소령(진) 박영진**  
48기/정훈  
인문학처  
군사사학과 교수

- 제48기 생도 과정 1등 졸업(대통령상)
- 고군반(OAC) 1등(국방부장관상)
- 2023년 정신전력 공모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 2023년 KIDA 국방미래인재학술상 우수상(한국국방연구원장상)

충성대에 온 것은 20대의 여러분이 가장 젊은 시절에 스스로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선택을 믿어주고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생도 생활과 군 생활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되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 결정을 존중하고 매 순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들이 모여 멋진 결과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위 조성진**  
51기/보병  
이학처  
국방시스템과학과 교수

- 제51기 생도 과정 1등 졸업(대통령상)
- 초군반(OBC) 보병상, 고군반(OAC) 헌신상
- 국방대학교 위탁 간정신전력강화 연구논문 공모전 입상(국방부장관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알아야 할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도 생활이 비록 힘들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전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 제117보병여단 방문 및 장병 위문활동

지난 3월 1일, 25기 총동기회에서 경남 남해안(거제, 고성, 통영)에서 해안경계 및 국토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제39보병사단 제117보병여단을 방문하여 여단장 이호순 대령(3사 35기)을 비롯한 장병들에게 위문금과 함께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동문 선·후배 10년 단위 기수 간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5기 총동기회는 “앞으로도 많은 동문을 위해 사랑을 아끼지 않는 25기 총동기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사 총동의회



### 2024년도 총동문산악회 시산제

지난 3월 16일, 관악산에서 총동문산악회 시산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

는 박주왕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1기부터 28기까지 한자리에 모여 총동문회의 발전, 그리고 참석한 선·후배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3사 총동의회



### 1기(충성회) 41대 회장단(회장 성경제) 총동문회 방문

지난 3월 5일, 1기(충성회) 41대 회장단(회장 성경제)이 총동문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회장단과 총동문회 간 동문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성경제 회장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1기 선배들의 한결같은 동문사랑 마음과 중요 행사 시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

며 현인을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동문회 주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약속,故 차성도 중위 추모행사 지속적 지원 요청, 충성문학동호회를 총동문회 조직으로 발전, 충성문학지를 동문회 홍보에 적극활용, 월남전 참전 동문(1기, 207명) 명예 고양 등의 의견을 나누었다.

3사 총동문회



### 마라톤 동호회, 총동문회 방문 및 발전기금 기부

지난 3월 19일, 마라톤 동호회 노성호 회장(19기) 등 6명의 동호회원이 총동문회를 방문하여 동문회 발전을 위한 대화를 나눴다. 마라톤 동호회는 마라톤을 좋아하는 동문들이 삼삼오오 대회에 참여하며 알고 지내다 2019년 김창수(1기)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결성된 동호회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동문회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라톤 동호회는 대회 참가 시 모교 유니폼 착용, 플래카드 설치, DMZ 달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모교 홍보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창수(1기) 동호회 명예회장이 동문회관 건립기금 1백만 원을, 마라톤 동호회에서 동문회 발전기금 1백만 원을 기부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동문회 현안에 대해 설명

3사 총동문회



### 김익수(19기) 동문, 총동문회 발전기금 1백만 원 기부

지난 3월 19일, 김익수(19기) 동문이 총동문회를 방문하여 총동문회 발전기금 1백만 원을 기부했다. 19기 사무총장 임무를 수행하는 김익수 동문은 평소

도자주 동문회를 방문하여 사무처를 격려하거나, 생도 위문 시에도 음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3사 총동문회

